

27 朝鮮遊覽歌 조선유람가

1947년 / 최남선 / 57면 / 13.10-13 최191조 1947

조 선유람가는 육당(六堂) 최남선(崔南善) 선생이 1928년 5월 23일에 타고한 시로 국토예찬을 노래한 것이다. 57면의 문고판 크기의 작은 책자로 1947년 8월에 출간되었다.

선생은 국토를 찬미하는 80소절의 시와 조선유람가 별곡(朝鮮遊覽歌別曲) 20소절 등 도합 100소절에 달하는 국토예찬을 썼다. 이 시에 김영환(金永煥)과 백우용(白禹鏞)이 곡을 붙여 유람가(遊覽歌)라 했다.

80소절의 내용을 보면 경기-9소절, 충청-7소절, 전라-10소절, 경상-19소절, 강원-5소절, 황해-5소절, 평안-8소절로, 경상도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이 희귀자료의 범주에 해당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사의 내용이 각 지방의 역사지리적 사실을 부각시키면서 국토를 노래한 것은 대단히 흥미롭다. 이런 뜻에서 국토를 다루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쯤은 읽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육당 선생은 책머리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

“조선을 노래할 것입니다. 그 산하(山河)를 노래할 것이며, 산하에 들어 있는 풍물을 노래할 것이며, 산하와 풍물이 經(경)되고 緯(위)되어 자아낸 문화의 비단을 노래할 것입니다.”



다. 노래하고, 노래하여 한 알의 모래에까지 우리의 순하고 정성스러운 예찬의 음율이 스며들게 할 것입니다...”

유람가 1절을 보면 “大地(대지)의 거룩한 힘 기둥이 되어 하늘을 버티고 선 백두의 성산 맹호의 수파람이 울리는 거기 성인이 나셨구나, 영웅 길렀네”, 2절에서는 “한 팔을 남에 던져 금수삼천리 무궁화 향내 덮힌 대조선반도 산 아니 높으시냐, 물이 곱구나 백화가 엷히려진 문화의 동산”이라 노래하고 있다.

1927년 연희전문학교의 이춘택(李春澤) 교수가 동아일보에 “서울은 이미 경성(京城)이 아니고 게이쵸(京城)다”라는 칼럼을 썼다. 이것은 당시 조선총독부가 발표한 서울의 토지소유통계에 따르면 한일합병 10년 만에 서울 땅의 80% 정도가 일본인 소유로 넘어갔다는 것이었는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이것을 문제삼아 “동포여 동포여, 땅 팔지 말자 땅 팔지 말자”고 계몽하는 한편 육당 선생을 백두산에 보내어 『백두산근찬기(白頭山勤參記)』를 쓰게 함으로써 민족정기를 진작시키기도 했다.